

해양경찰관의 죽음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

김순희¹⁾, 이미화²⁾

Attitude Factors of Marine Police Officer to Death

Kim, Soon Hee¹⁾, Lee, Meehwa²⁾

요 약

본 연구는 해양경찰관의 죽음에 대한 태도, 영적 안녕, 생의 의미 및 자아존중감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해양경찰관을 위한 죽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시행하였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부산, 경남에서 근무하는 해양경찰관 16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Ver. 21.0)을 이용하여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해양경찰관의 죽음에 대한 태도, 영적 안녕과 생의 의미, 자아존중감은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죽음에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beta=.64$), 생의 의미($\beta=.62$) 영적안녕($\beta=.52$)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62.1%로 나타났다. 앞으로 반복 연구를 통해 해양경찰관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파악해 보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공인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핵심어: 해양경찰관, 죽음에 대한 태도, 영적안녕, 생의 의미, 자아존중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 death education program for a marine police officer by examining the attitude, spiritual well-being, meaning of life, and self-esteem of the marine police officer. The data collection period targeted 168 marine police officers working in Busan and Gyeongnam from March 1 to July 30, 2018.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 WIN (Ver. 21.0). Marine police officers' attitudes toward death, spiritual well-being, meaning of life, and self-esteem were all positively correlated. The factors affecting the attitude of the subject's death were self-esteem ($\beta = .64$), life meaning ($\beta = .62$), and spiritual well-being ($\beta = .52$). The total explanatory power was 62.1%. . In the future, through repeated studies,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research and understand the attitudes of the maritime police officers toward death and to develop positively recognized

Received (January 10, 2020), Review Result(February 25, 2020)

Accepted(March 14, 2020), Published(March 31, 2020)

¹Associate Professor, 614-715, Department of Nursing,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Yangji-ro 5beon-gil, Busanjin-gu, Busan, Korea

E-mail : ozblood@dit.ac.kr.

²(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614-715,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Yangji-ro 5beon-gil, Busanjin-gu, Busan, Korea

E-mail : mhlee8561@dit.ac.kr

ISSN: 2383-5281(Print) AJMAHS

ISSN: 2383-7268(Online) Copyright © 2020 HSST

educational programs.

Keywords: Maritime Police Officers, Students, Attitude toward Death, Spiritual Well-Being, Meaning of Life, Self-esteem

1. 서론

해양경찰관은 바닷가 및 바다에서 일어나는 위험과 범법행위로부터 국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법률을 위반한 사람을 체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업무 강도가 고되고 선박 사고의 구조 활동, 중국어선 단속 등을 통해 죽음을 목격하는 경험을 종종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우울증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을 경우가 있다고 보고 있는 실정이다[1]. 그래서 긍정적인 죽음에 대한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정상적인 삶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으며, 인간은 누구나 태어났으면 죽음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되고 죽음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 삶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고 삶에도 영향을 준다[2] 개인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면 개인의 삶에 대한 태도나 삶에 의미에 미치는 의미 또한 알 수 있게 된다. 죽음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는 간호사,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되었고, 특히 영향요인으로 주변인의 죽음경험, 죽음 관련 교육경험,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영적안녕 및 삶의 만족도 등이라고 조사한 연구들이 많다. 하지만 해양경찰관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3].

영적안녕은 본인, 절대자 또는 타인과의 사랑, 용서, 신뢰의 관계를 맺어가며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희망과 관련된 영적 요구가 충족되어 조화된 삶을 영위함으로써 이것들을 통틀어 합하여 건강한 상태를 의미[4]하는데 이는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전문인으로서 스스로 영적 안녕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삶에 불만족하며, 갈등상황을 만들게 되어 본인의 삶을 돌아보며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5]. 이에 본 연구는 해양경찰관의 죽음에 대한 태도, 영적 안녕, 생의 의미 및 자아존중감 정도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해양경찰관을 위한 죽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하여 시행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및 기간

본 연구 대상자는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소속되어 근무하고 있는 해양경찰관 168명을 임의 표집하였다. 자가 보고식 설문지는 180부 배부하여 의미있는 자료 168부를 분석하였다. 연구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이고 연구 참여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 위해 허락한 대상자에게 피험자 동의서에 직접 서명하고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안내문에 연구의 목적과 대상자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며, 원하지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 수집을 시행하였다. 표본의 수는 G*power3.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과크기는 중간크기인 0.15, 유의수준(α) .05, Power($1-\beta$) .95로 계산한 결과 표본크기가 최소한 156 명으로 표본수를 확인하였고 180부를 설문하여 응답이 누락되었거나 부적절한 설문지는 제외시키고 168부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1) 죽음에 대한 태도

죽음에 대한 태도는 Thorson과 Powell[6]이 개발하고 Park[7]이 번안하여 Kim[8]이 수정하고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4점 척도로 총 20문항으로 부정적인 12문항은 역산 처리하였다. 점수 범위는 20점에서 80점 사이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Thorson과 Powell[6]이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가 Cronbach's α 는 .83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6이었다.

2) 영적 안녕

영적안녕은 Paloutzian과 Ellison[9]이 개발하고 Choi[10]이 번안하여 Kwang[11]가 수정하고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실존적 안녕 10문항, 종교적 안녕 10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부정적인 8문항은 역산 처리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식 척도로 “ 매우 그렇다” 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환산하였다. 점수 범위는 20점에서 8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으로 안녕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Paloutzian과 Ellison[9]이 개발 당시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3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3) 생의 의미

생의 의미는 Choi 등[12]이 개발한 도구로 총 46문항으로 측정하였고 총 46문항 4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 4점, ‘대체로 그렇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화하였다. 점수범위는 최소 46점에서 최대 184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생의 의미 수준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Rogenberg[13]가 개발하고 전병재가 전안한 도구로 총 10문항으로 자아가치와 자아승인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긍정 5문항, 부정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9이었다.

2.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 WIN(Ver.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해양경찰관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해양경찰관의 죽음에 대한 태도, 영적안녕과 생의 의미, 자아존중감은 평균평점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해양경찰관의 죽음에 대한 태도, 영적 안녕, 생의의미와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 4) 해양경찰관의 죽음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해양경찰관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구 대상자는 대부분이 남자 99.4%이었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는 60.1%였다. 경제적 상태가 중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61.3%, 상으로 지각하는 경우가 38.7%였다. 해양경찰관 경력은 5년 이하가 33.4%, 6-10년이 48.8%, 10년 이상이 17.8%였다.

[표 1]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168)

Variables	Classification	Mean±SD(n, %)
Gender	Male	167(99.4)
	Female	1(0.6)
Religion	Yes	101(60.1)
	No	66(39.9)
Economic status	Well-to do	65(38.7)
	Average	103(61.3)
	Poor	0(0.00)

	<5	56(33.4)
Total career as policeman (yr)	6-10	82(48.8)
	>10	30(17.8)

3.2 해양경찰관의 죽음에 대한 태도, 영적 안녕, 생의 의미, 자아존중감 점수

해양경찰관의 죽음에 대한 태도, 영적안녕, 생의의미와 자아존중감 점수는 [Table 2]와 같다. 죽음에 대한 태도 평균 평점은 5점 만점에 3.07±0.15점 이었고, 영적 안녕 평균 평점은 5점 만점에 2.72±0.04점이었다. 생의 의미 평균 평점은 5점 만점에 2.98±0.22점이고 자아존중감 평점은 5점 만점에 3.31±1.18점이었다[Table 2].

[표 2] 해양경찰관의 죽음에 대한 태도, 영적 안녕, 생의 의미, 자아존중감 점수

[Table 2] Marine Police Officer Attitude toward Death, Spiritual Well-Being Meaning of Life and Self-esteem (N=168)

Variables	Mean±SD	Minimum~Maximum
Attitude toward Death	3.07(0.15)	1.82~3.87
Spiritual Well-Being	2.72(0.04)	2.15~4.80
Meaning of Life	2.98(0.22)	2.10~4.26
Self-esteem	3.31(1.18)	1.89~4.42

3.3 해양경찰관의 죽음에 대한 태도, 영적안녕, 생의 의미,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해양경찰관의 죽음에 대한 태도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와 같다. 죽음에 대한 태도와 영적안녕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144, p=.007$)가 나타났고, 죽음에 대한 태도와 생의의미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324, p<.001$)이었다. 죽음에 대한 태도와 자아존중감도 양의 상관관계($r=.284, p=.001$)이었다. 영적안녕과 생의의미는 유의한 상관관계($r=.462, p<.001$)가 있었고, 영적안녕과 자아존중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159, p=.001$)가 나타났다. 생의의미와 자아존중감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227, p<.001$)가 나타났다.

[표 3] 해양경찰관의 죽음에 대한 태도, 영적안녕, 생의 의미,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

[Table 3] Marine Police Officer correlations for Attitude toward Death, Spiritual Well-Being Meaning of Life and Self-esteem (N=168)

Variables	Attitude toward Death	Spiritual Well-Being	Meaning of Life	Self-esteem
	r(P)			
Attitude toward Death	1			
Spiritual Well-Being	.144(p=.007)	1		
Meaning of Life	.324(p<.001)	.462(p<.001)	1	
Self-esteem	.284(p<.001)	.158(p=.005)	.227(p<.001)	1

3.4 해양경찰관의 죽음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

해양경찰관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Table 4와 같고, 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종속변수로 영적안녕, 생의의미,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해양경찰관의 죽음에 대한 태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각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행한 분석 결과는 죽음에 대한 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자아존중감 ($\beta=.642$)이었으며, 다음으로 생의의미($\beta=.621$), 영적안녕($\beta=-.520$)순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관의 죽음에 대한 태도에 영적안녕, 생의의미, 자아존중감이 영향요인으로 검증되었으며($F=62.13, p<.001$),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58.0%이었다.

[표 4] 해양경찰관의 죽음에 대한 태도 영향요인

[Table 4] Marine Police Officer Influence factors on Death Attitude (N=168)

Variables	B	SE	β	t	p
Spiritual Well-Being	0.318	0.035	0.520	9.089	.007
Meaning of Life	2.258	0.363	0.621	5.222	<.001
Self-esteem	2.354	0.032	0.642	2.967	<.001
Adj.R2=0.580, F=62.132, p <0.001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해양경찰관의 죽음에 대한 태도, 영적안녕, 생의 의미과 자아존중감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자료수집 기간은 2018년 3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소재 소속되어 근무 중인 해양경찰관 16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Ver.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분석한 결과는 해양경찰관의 죽음에 대한 태도, 영적안녕, 생의 의미와 자아존중감의 점수는 보통으로 나왔으며, 해양경찰관의 죽음에 대한 태도, 영적 안녕과 생의 의미, 자아존중감은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죽음에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존중감($\beta=.64$), 생의 의미($\beta=.62$) 영적안녕($\beta=.52$) 순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62.1%로 나타났다. 앞으로 해양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반복 연구를 제언하며,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해양경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결과 해석에 제한이 있으므로 추후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하여 연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위험한 상황에 타인의 죽음 상황을 목격해야 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Referance

- [1]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Staff,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Fifth edition(DSM-5). 5th ed (2013). Washington, DC.
- [2] Y. R. Han & I. H. Kim, Attitude toward Death and Recognition of Hospital of Community Dwell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008), Vol.22. No.1, pp.49-61.
- [3] Y. S. Cho & B. Y. Chung, Influencing Factors on the Death Attitude of Nursing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Parent Child Health. (2016), Vol. 19. No.1, pp.33-44.
- [4] B. Y. Ha, E. J. Jung, & S. Y. Choi, Effects of resilienc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n the quality of life in patients with breast can-cer,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14), Vol.20. No.1, pp.83-91.
- [5] E. H. Kim and E. J. Lee, Effects of a death educational program on life satisfaction and attitude toward death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9), Vol.39. No.1, pp.1-9.
- [6] Thorson J. A. and Powell f. C. Elements of death anxiety and meaning of death,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99), Vol.44. No.5, pp.691-701.
- [7] S. C. Park, A sturdy on the death orientation of hospice voluntee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992), Vol.22. No.1, pp.68-80.
- [8] J. H. Kim, Relationship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attitude toward death in volunteers hospice care,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2007).

- [9] Paloutzian R. F and Ellison C. W.,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 the quality of life, In L.A. Peplau, D. Perman (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rch & theory,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2).
- [10] S. S. Choi, A correlational study on spiritual wellness, hope and perceived health status of urban adul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1990).
- [11] J. H. Kwang, A study for the spiritual well-being of the cancer patients,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1996).
- [12] S. O. Choi, S. O. Kim, K. I. Shin and J. J. Lee. Development of meaning in life scale II,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05), Vol.35. No.5, pp.931-942.
- [13] Rosenberg. M,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5.